



광남일보



50억 모태펀드 조성·광주벤처 투자 '마중물'
광주청경센터, 증기부 1차 청사출자 사업 선정

7



'국성물' 2년만에 누적 매출 15억 달성
지역경제 선도 온라인 플랫폼 자리매김

8



신안 청정 농수특산물로 만든 김밥 '향연'
김밥메스타, 26~27일 자은도 뮤지엄파크

10



광주FC, 알 힐랄 잡고 ACLE 4강 쓴다
이정호 감독 "목표는 우승...우리의 축구 할 것"

12

조간 제7831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음력 3월 28일)

광주 AI·전남 재생에너지...이재명 "호남시대 열겠다"

선택! 대선 D-3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는 24일 "인공지능(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 분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전남·전북을 아우르는 호남권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호남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지역"이라며 "AI, 재생에너지, 농생명 산업의 거점을 조성해 경제 부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광주와 전남을 AI·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광주에는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확충하고, 기존 AI 집적단지 및 미래 모빌리티 부품 클러스터와 연계해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남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하고, 나주를 한국전력과 에너지공대 중심의 에너지 신산업 거점으로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 확충...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수도권·영남권 잇는 교통망 완성
지속가능 메가시티 실현..."광주 공공항 이전 충분히 협의"

만들 계획이다"면서 "신안·고흥·여수·부안·새만금 등지에 해상풍력·태양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주요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재생에너지로부터 얻는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바람 연금' 제도를 추진하고,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 확대와 함께 조력발전소 건설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와 전남의 분야별 핵심 공약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그는 "농업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과 전기 트랙터·전기 축분 처리기 같은 친환경 농기계 확대를 통해 농업의 탈탄소 전환을 꾀하고, AI 기반 농업 지구 조성 등으로 스마트 농업 기술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산업은 생산·가공

·수출이 연계된 수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양식품 산업벨트를 구축해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 공약에 대해서 "호남을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과 공공의료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면서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순천만 갯벌, 여수 화양 복합 관광단지,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등을 연계한 서남해안 체류형 관광지 조성, 부안고창 노을대교 조기 착공, 완도고흥 연결 지원 등을 통해 생태·예술 관광 벨트를 구축하겠다"며 관광산업과 관련한 공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2면에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4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해남 솔라시도에 외국인학교 설립 본격화

해남 솔라시도에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학교 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 레드랜드스 크리스천 스쿨(Redlands Christian School·RCS)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이날 일정을 전남을 방문해 솔라시도 기업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2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미국 현지에서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향후 구체적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방문단은 토드 매트슨 RCS재단 이사장, 브라이언 벨 RCS 총괄교장, 다니엘 폴 RCS코리아 미국 대표, 다니엘 펙시

디스 RCS코리아 한국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해남 구성지구의 외국교육기관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기업도시 내 교육환경 및 입지 여건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김영록 지사와 면담을 통해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록 도지사는 "솔라시도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기업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국제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솔라시도에 외국교육기관의 성공적 설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4일 영암현대호텔비라리관에서 솔라시도 외국교육기관 설립 현장 답사를 위해 방문한 토드매트슨 미국 RCS재단 이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미국 RCS재단, 예정부지 방문
입지 여건 점검·협력 방안 논의

민주, 내일 호남권 경선...표심잡기 경쟁

권리당원·대의원 투표...막판 득표전 '27일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오는 26일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경선대회를 앞두고 일제히 텃밭을 찾아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호남지역 경선은 총 4차례 중 3번째 순회 경선지로, 지난 23일부터 광주·전남·전북 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 중이며, 오는 26일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24일 민주당 광주시장 등에 따르면 호남권 경선대회는 23일부터 26일까지 권리당원 및 전국대의원 투표가 진행되고,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3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합동연설회가 개최된다.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과 ARS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온라인 투표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26일 오전 9시

부터 연설회 종료 후 30분까지 진행된다. ARS 투표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3번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참여할 수 있다.

2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2번 걸려 오는 전화를 통해 투표가 가능하며,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권리당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전국대의원은 26일 호남권역 합동연설회 당일인 오후 3시에 투표가 진행된다.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경우 21일부터 27일 사이 이틀에 걸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2면에 계속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서 계속

1주|광주버스방송

월 8만원으로 버스에 광고가?!

광고문의를 비교하고 예약까지

지속·반복적인 노출로 움직이는 영상매체

지역·타겟 맞춤광고 가능 + 높은 주목도 + 저렴한 광고비

이번정류장: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2층 (중흥동)

다음정류장: 1주|광주버스방송

광고매체 위치: 운전석 뒤, 하차문 뒤 (총 2개)

버스 내부 모니터 광고 문의 ☎062) 223-6511